

개척교회서 3천여 성도 대형교회로 성장한 비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작은교회 일으키기' 전도 부흥축제 첫째 날 집회가 10일 오후 7시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에서 열렸다.

전도부흥축제 강사로는 사임 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목사는 부흥 비결인 말씀과 성령을 위해 기도하며 부흥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전도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이 있다. 또 성령 충만 받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바로 '전도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부흥을 바래선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목사는 기도하



상록수명륜교회 담임 이상철 목사가 교회 성장 비결을 전했다. ©이태근 기자

이상철 목사, 작은교회 살리기 전도부흥축제서 말씀 전해

을 하다 2억원 빛을 지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개척 10년 만에 3천여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킨 한국 상록수명륜교회 담임 이상철 목사가 나섰다.

이날 이 목사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부흥 비결 두 가지

를 개척을 시작 후 8년 만에 깨달은 부흥의 비결이 두 가지인데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었다.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시 교회를 찾는다. 또한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 충만을

가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라도 들으시고 그 때는 분명히 온다. 그렇기에 인내하며 기쁨 부으심

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부흥하기 위해서 성령의 부르

심에 귀 기울이기, 내어놓기 힘든 것 내어놓기, 하나님의 임재 기다리기, 하나님께 붙잡혀 살기 등에 대해 전했다. <이태근 기자>



제프 터니클리프 WEA 대표(좌)와 올라프 트비트 WCC 총무(우)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 WCC 본부에서 회동을 갖고 양 기구의 공동의 관심사를 나눴다. ©WEA

WEA-WCC 대표 “교회 연합 위해 더 협력하자”

트 WCC 총무의 회동은 지난 주 WCC 본부인 스위스 제네바 에 큐메니칼 센터에서 이뤄졌다. 양 기구 대표는 지난 2007년 케냐 리무루에서 개최된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GCF) 이후 처음이자, WCC의 신입 총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다.

를 나눴다. 터니클리프 대표는 “이번 만남을 통해 복음전도와 종교자유, 전 세계 약자들의 보호에 대해 서로가 갖고 있는 이해를 확

유한 관심사를 더 나눌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이날 세계의 다양한 교파 간 대화와 연합을 위한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을 WEA

한다면 기독교로 인정하고, 함께 세속주의와 다원주의, 이슬람을 비롯한 타 종교 발흥 등에 대처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동의를 이뤄지면서 시작했다.

최근 제네바에서 회동...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지원키로

세계복음연맹(WEA)과 세계 교회 연합을 위한 공동의 노력 방 교회협의회(WCC) 양측 대표 안을 모색했다. 제프 터니클리프 WEA 대표와 올라프 트비

두 대표는 선교와 복음전도, WCC와 교황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개종에 관한 규범(교파 간 대화 시 자신의 교파로 개종시키려는 직·간접적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의 확대 등 공동의 관심사와 이들 분야에서 양 기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화

인할 수 있었고, 양 기구 협력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WCC와의 대화를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 WCC 양 기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6년 WCC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 포럼은, 이어 1997년 WEA, WCC, 가톨릭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는다'는 두 가지 대전제에 동의

지난 2007년 리무루 포럼 때는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복음주의교회, 오순절교회, 아프리카교회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WEA는 세계 4억2천만 복음주의 교인들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최대 기구이며, WCC는 5억6천만 회원 교인들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기구다. <손현정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얗습니다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협찬: 한국관광공사 특별후원: 기독일보 아시아나항공

명품 건강검진

대한민국 일등 병원 '아산병원' 미주 일등 기독신문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미주 일등 관광 'LA아주관광'의 명품의료관광!

총 4회 출발: 4월 1일(4월 3일 검진), 4월 15일(4월 17일 검진), 5월 6일(5월 8일 검진), 5월 27일(5월 29일 검진)
(고객이 원하시면 미리 출발해서서 검진일에 합류 가능. 검진 결과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짜 자유롭게 선택 가능)
(모두포함) 항공료+호텔(3박)+식사+공항 픽업 및 교통서비스+서울시내투어

정밀검사: 흉부X선(전후, 측면), 종양표지자(간암, 대장암, 담도암), 심전도, 복부초음파, 심전도, 복부초음파, 혈액정밀검사

공동검사: [공통] 위내시경(수면), 대장내시경(수면), 흉부CT, 복부골반CT, 뇌MRI, [남] 종양표지자(전립선암), 전립선초음파, 심장운동부하, 심장초음파, [여] 종양표지자(난소암), 유방X선, 액상자궁경부암, 골반초음파/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흉추요추X선

기독일보 - 안심 프로그램 남/여 \$3499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울아산병원 안심프로그램
혜택:
기독일보 고객께만 주어지는 특별 혜택
1. 기독일보 고객만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프로그램(머리부터 발끝까지-안심프로그램)
2. 검진 다음날 서울 시내투어 무료 제공
미주교민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특별 혜택
1.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검진 결과를 검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음
2. 이상소견 발생시 2~3일내로 전문의와의 면담이 주선택됩니다(통상 1~3개월 소요)

국내 의료계 최초 암센터 부문, 대한민국 명품 선정
2009 The Proud 대한민국 명품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10대 암종재 암 수술 실적 1위 및 6개 암 환자 수술 회차 시행 병원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아주관광입니다!
www.usajutour.com
대표전화 (213)388-4000
서울 02-522-8686
1-800-933-3011

서울아산병원
아산병원 LA센터: 213-387-9090

부활절 무슨 날인가? 질문에 대다수 미국인 '모른다'

■ 바나그룹 조사, 부활절 의미 아는 이들 더 전도 안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로 미국의 큰 행사로 자리잡아왔지만, 이제는 점차 그 빛을 잃어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기독교 리서치 기관 <바나그룹>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부활절을 종교적 절기라고 인식하는 한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부활절, "뭔가 종교적" ... 의미 모르는 미국인 다수

먼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부활절을 한 종교절기로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인 3명 중 2명(67%)이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날이라고 부활절을 분류했다.

많은 이들이 부활절을 기독교 절기 행사,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 신성한 날 혹은 교회나 예배에 참석하는 특별한 날 등으로 부활절을 인식했다. 한편 부활절에 의미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돌아왔다. 미국인 중 42%가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고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인 50명 중 1명 풀(2%)로 부활절을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활절의 진짜 의미를 혼동하는 이들도 꽤 많았다. 응답자의 2%가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답했고, 다른 2%는 "예수님의 중생 혹은 재탄생(Re-birth of Jesus Christ)", 1%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다.

부활절이 계란을 색칠하는 절기라고?

응답자의 13%가 부활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뭇거렸다. 미국인 중 8%는 부활절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으며 특별히 기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른 응답으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이는 절기(4%), 봄 맞이(3%),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 혹은 재생을 알리는 절기(2%), 계란을 색칠하는 절기(2%), 아이들이 즐기는 절기(2%), 부활절의 상징인 이스

터 버니(Easter Bunny)가 떠오를 것(1%), 지나치게 상업화된 절기 중 하나(1%), 음식이나 사랑을 즐기는 기회(1%)라는 의외의 응답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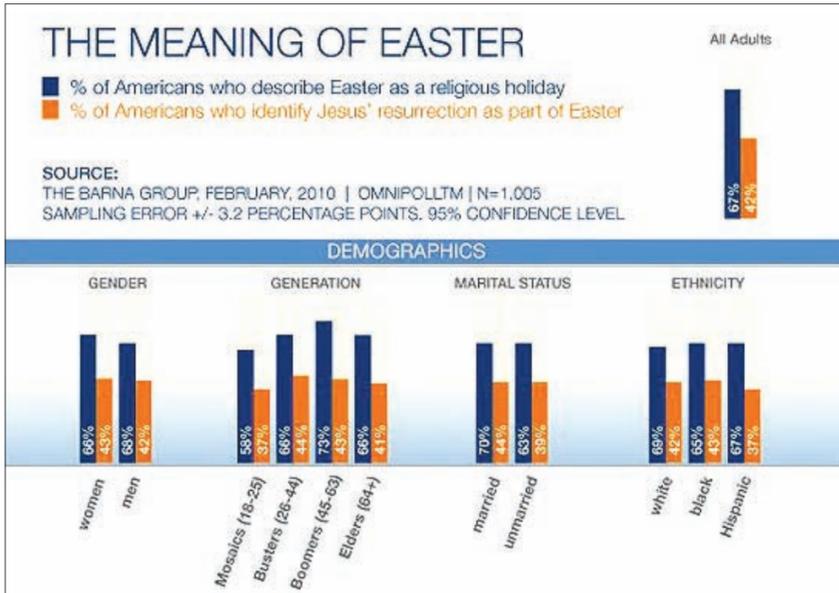
-기독교 행사로 부활절 맞이하는 이들 얼마나 될까?

부활절을 종교적인 절기로 지키는 이들은 복음주의자(93%), 대형교회 교인(86%, 500명 이상 교회), 중생한 기독교인(81%), 매주 교회를 다니는 이들(77%)의 순이었다.

공화당(77%)과 민주당(71%)이 무소속(59%)이나 지지당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51%) 보다 더 많은 비율로 부활절을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이별로는 베이비붐세대인 45세에서 63세 그룹(73%)이 가장 많았고, 64세 이상이 66%, 26세에서 44세 그룹의 66%가 부활절을 종교절기로 지킨다고 응답했다. 예상대로, 가장 젊은 층인 18세에서 25세 그룹은 타 그룹에 비해 가장 적은 58%가 종교적인 절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활절 의미 알지만 전도에는



파란색 그래프는 부활절을 종교적인 날로 인식하는 비율, 주황색 그래프는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 기념하는 날로 인식하는 비율이다. (오른쪽부터)성별, 세대별, 결혼여부, 인종 별@바나그룹.

‘글쎄’ 바나그룹은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절 주말 교회에 불신자들을 초청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활동적인 교인들 가운데 31%가 당연히 주변의 누군가를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주변 믿지 않는 이웃을 초청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의 분류로 가

장 많은 응답자를 기록한 것은 여성,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 복음주의자, 개신교인, 작은교회 교인들, 비(非) 백인 순이었다. 흥미롭게도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교인보다 오히려 불신자를 초대하겠다는 응답이 적었다. 바나그룹 데이빗 키나맨 대표는

“교회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부활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들이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데는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그들의 신앙적인 이해가 이웃들과 영적인 대화(전도)를 해야 할 긴박성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결론”이라고 분석했다.

<권나라 기자>

[섬기는 사람들] 교회와 소셜 미디어

요즘 들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새로운 용어들 중 하나가 소셜 미디어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인터넷 백과사전은 그 용어 설명을 이렇게 소개한다.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을 말한다.' 쉽게 말해 소

셜 미디어란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사이월드, 트위터, 마이블로그, 디igo,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게 되는데,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셜 미디어는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알리는 홍보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도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라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소셜 미디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많은 사용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어서 큰 기업이나 단체가 특정 상품이나 행사 홍보용으로 주로 사용할 뿐이다. 바로 이런 단점을 보완해 줄 도구, 즉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자기 자신을 홍보할

수단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 필요 충족을 위해 태어난 것이 인터넷 기반 소셜 미디어이다. 교회는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이 콘텐츠(복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반드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가 이 위대한 콘텐츠를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소셜 미디어이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 받은 교회가 말로 인터넷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셜 미디어와 같은 효과적인 전도수단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사도 바울께서 현 시대에 복음 전파를 하고 계시다면, 그는 그 무엇보다 먼저 소셜 미디어를 배우셨을 것이다. 교회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 수단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와이 올리브연합감리교회 이상호 목사>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안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오픈 1주년 - 고객 감사 대잔치

한국 청담동의 스타일과 베버리힐스의 기술이 만나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를 **50% 할인** 드립니다
~~\$200 up~~ Regular Price
\$100 up

컷트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코팅** 또는 **염색** 을 해드립니다

지난 1년간 찾아주신 많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편리한 주차장
160대의 넓은 실내 파킹장
웨스턴 길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들어 오셔서 2층에 주차하시면 2층에서 바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위치 - 메류리콘도 상가 2층
월서 + 웨스턴 코너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213-381-6485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쉐퍼드대 살롬 김 학감, 세미나서 예수님의 부활 증거 제시

사순절 기간 십자가상의 고통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세미나가 15일 오후 2시 쉐퍼드대학교에서 열렸다. 세미나 강사로는 쉐퍼드대 신학부 살롬 김 학감이 나서며, 김 학감은 세미나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이 저

아이를 낳았다는 소설 '다빈치 코드'의 주장을 일축시켰으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짐작케 했다. 먼저 김 학감은 '다빈치 코드'가 주장하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결혼은 허구라는 것을 증명했다.

에서 유골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학감은 "당시 '예수'라는 이름과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했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마을 25%의 여성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흔해 마리아 예

수일 같은 인물이 아님을 증명하게 됐다"며 다빈치 코드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결혼 주장을 일축시켰다. 김 학감은 발견된 수의와 수건이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의와 수건을 통해 들어

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알렸다. 김 학감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고 로마병사의 창에 찔림을 당하셔 피와 물을 흘리셨다. 왜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물까지 흘리셨는가. 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극심한 피로로



김 학감이 자료로 제시한 수의에 나타난 예수님 얼굴

“십자가 형벌은 극심한 고통...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술한 책 '크로스 시크릿'에 수록된 자료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강의했다. 세미나에는 신학생, 평신도, 목회자가 다수 참여했다. 김 학감의 이날 강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다는 물적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김 학감은 "1980년 3월 28일 유월절 전 금요일 오후 예수의 유골이 담긴 유골이 발견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유골이 발견된 곳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적힌 유골도 함께 발견됐다. 유골의 DNA를 분석해본 결과 두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한국

수님이 결혼했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학감은 "당시 유대인은 문화적 관습에 따라 시신을 씻던 수의와 수건을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을 매우 불경건스러운 일로 여겨 제거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수의와 수건이 후일 발견됨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난 예수님 얼굴의 상처 부위와 수의에 배인 피의 위치가 일치함을 보여주며 "수의와 수건이 발견된 후 수의에는 불태워 없애버려 했던 흔적이 있었고, 수의와 수건이 여러 차례 옮겨진 것으로 보아 이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학감

페에 물이 차는 폐수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못 박히신 손과 발만 알지만 실제로는 몸에 수많은 상처가 있어 못 박히시기 전 이미 많은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

했다. 끝으로 김 학감은 "세미나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사순절 기간 더욱 새로워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주를 향한 첫 사랑으로 일하는 일꾼 되세요”



안수위원들이 임직자를 위해 안수 기도를 드렸다. ©이태근 기자

LA 사랑의교회 새 임직 12명 세위

LA 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의 새 일꾼을 세우는 임직예배가 14일 오후 5시 본당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1부 예배, 2부 임직식 순으로 드려졌다. 1부 예배

에서는 남가주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가 '첫 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나성열린문교회 박현성 목사가 권면의 말을 전했다. 이날 세워진 일꾼은 안수집사 4명, 시무

사 4명, 시무장로 3명, 명예장로 1명 등 모두 12명이다.

김승욱 목사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한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에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상하며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현성 목사는 권력 주장하지 않기, 헌금에 모범되기, 목회자 위로자가 되기 등 3가지를 권면했다. 박 목사는 "직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맞게 목회자를 섬겨야 하며, 특별히 헌금이 모범이 되며 교인이 많아지면 외로워지는 목회자를 위로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절제되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틱 하모니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한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지난 10일 오후 8시 UCLA 로이스홀(Royce Hall)에서 세계적인 매조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와 함께 한 협연 무대가 펼쳐졌다. 정명훈 지휘자는 라벨 특유의 다채로운 음색과 웅장한 악기의 사용 등에 대한 특징을 시종일관 절제되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틱 하모니를 이끌

어냈다. 이날 UCLA Performing Arts, 'UCLA Live'에서 주최한 이번 공연은 전곡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의 작품이 연주됐다. 프로그램은 발레곡 '어미거위'(Ma Mere l'oye)와 스웨덴 출신 오페라 가수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Anne Sofie von Otter)와의 협연 무대인 '셰헤라자데'(Sheherazade) 그리고 '왈츠'(La Valse)와 '다프니스와 클로

에'(Daphnis and Chloe)로 감미로운 목소리를 드러냈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는 파리를 거점으로 하는 프랑스의 관현악단으로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과 마찬가지로 라디오 프랑스 산하의 악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명훈 지휘자는 지난 2000년부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UCLA 로이스홀에서는 오는 3월 24일(수) 오후8시 세계적인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Ian Bostridge)가 선보이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연주가 개최될 예정이다. 입장료 \$36/\$48/\$62/\$72(\$18 UCLA 학생)문의) 310-825-2101 / ucla-live.org <지재일 기자>



(왼쪽)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 (오른쪽)정명훈 지휘자. ©UCLA Live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GST Language Center
갈릴리 신학대학
유학생을 **장학생**으로 초대
가장**빨리 영어배우실분**
학위전학, 신분변경무로
학생소개자특전!
목회자 추천
학비 선착순 파격할인 \$140/월
Power English 무료칭강 기회
I-20 자체발행, 석,박사 학위
특별장학금, 별도사례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550.7377** 24시간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HAPPYDAY CONFERENCE 2010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폭발적인 부흥의 결과를 가져오는 8주간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한국에서 2,300개 교회의 적용을 통해 **평균 40% 이상의 출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미주 지역과 캐나다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500명을 선착순으로 등록 받습니다.
※ 2009년 가을 해피데이 전도를 통한 새신자 등록 현황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순천성광교회(김동운목사)	1100명	600명	대구원대교회(김우혁목사)	330명	130명	하나인교회(이태영목사)	450명	200명
제자들교회(김경희목사)	120명	85명	대구선교회(정성은목사)	50명	133명	산정현교회(김형권목사)	200명	100명
부천벨레교회(오정호목사)	50명	52명	예향침례교회(이기영목사)	140명	79명	주님의교회(전영이목사)	18명	29명
부평교회(최원국목사)	200명	115명	부천빛교회(오길용목사)	100명	80명	순복음중앙교회(최동열목사)	50명	70명

더 늦기 전에 **해피데이 전도**를 준비하십시오.
해피데이 전도는 불신자 전도와 교회 부흥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서두르세요!

강사: 김한욱 목사(새안양교회 담임,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대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일시: 2010년 6월7일(월) 오후1시-9일(수) 오후5시까지
장소: **나성한인교회**(담임 김명진 목사, 교회주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대상: 담임목사 및 성도(1교회 2명 이상, 담임 목회자는 필히 참석)
등록: 1인 \$250(4월15일까지), 1인 \$270(4월16일~5월5일까지), 1인 \$300(5월6일부터)
교재, 중식 및 간식제공, 숙박 별도

환불규정: 5일전까지 10% 차감, 하루 전까지 20% 차감, 당일부터 30% 행정수수료 차감
등록방법: **둘로스교회 홈페이지(www.douloschurch.com)** 게시판에 신청 후 체크를 보내고 전화 주세요.
Pay to the order of : Doulos Community Church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문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담당자 둘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전화 310. 951. 3153 팩스 310. 214. 1150 이메일 jbsbc@hanmail.net
※ 선착순 등록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이슨 마 목사,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 '1040' 제작

'1040', 아시아의 급속한 복음전파 현장 담아

어드벤처스닷컴이 아로와나 영화사와 연계해 제작한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 '1040'가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천사의 도시 영화축제 2010' (2010 City of the Angels Film Festival, CAFF)에서 특별 개봉했다.

1040은 북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10/40'대에 해당하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급속하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할리우드에 있는 미국 영화 감독 조합에서 상영됐다.

1040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눈을 통해 아시아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캠퍼스 교회 네트워크 목회자이자 예술가인 제이슨 마 목사가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아시아의 크리스천 유명인사, 가수, 실업가 및 목회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영화에서 한국교회에 대해 제이슨 마 목사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200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장면을 담았다. 부활절 새벽, 수많은 한국 기독교

인들이 연합으로 간절히 부활절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으며 아울러 2007년 7월 분당 샘물교회 목회자 및 청년 21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선교 도중 순교한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씨를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수 많은 청년들이 날마다

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의 유명 밴드인 'F4'의 밴네스 우와 한국 가수 '선'과 같은..아시아인..가수들은..연예계 부문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기독교가 어떻게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연예인들, 유명인사들 및 팬들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에 관한



(왼쪽부터) 영화 '1040'의 칼 초이(Carl Choi, Executive Producer), 제이슨 마 목사(Jaeson Ma, Producer), 가수 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며 중국인 목회자의 인터뷰에서 향후 30년내 중국이 세계 선교계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만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기독교 방송국 Good TV 설립자와의 인터뷰 중 기독교 방송으로 한반도 복음을 듣지 못한 대만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

내용이 담겨 있다. 전설적인 힙합 가수이자 목회자인 엠씨 해머는 '1040'영화에 등장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세계가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다.

경제적인 상승과 함께, 또한 강력한 복음적인 운동이 퍼져가고 있으며 이것이 전체 문화를 변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슨 마 목사와 가수 선과의 미니 인터뷰 내용〉

-영화 1040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제이슨: 1040 영화에서는 세계 선교의 흐름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변화되는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로 담았다. 갈수록 기독교 교회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서양 세계에 비해 급속하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싶었다. 중국의 경우 하루에 4만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국가들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며 아시아를 위해 기도해 달라.

-1040에서 선 씨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이슨 마 목사가 한국교회의 부흥에 관한 내용을 담음과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이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선교라는 것이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변호사, 가수 등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지재일 기자〉

이상철 목사, 교회 성장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

빛더미에서 3천명 출석 대형교회 성장 이야기

꿈을 위해 돈을 모으다 빛더미에 앉게 되고 빛쟁이들의 폭력에 맞선 상처 받고 그리고 교회 개척 후 10년 만에 3천여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의 부흥... 이 모든 것이 상록수명령교회 담임 이상철 목사의 삶 이야기다.

이 목사는 부교역자 시절 성전을 구입 후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겠다는 꿈을 앗고 성전 구입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을 해 빛더미에 앉게 됐고 그 빛으로 인해 이 목사 가족은 빛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됐다. 2억 1천만 원의 빚이 있던 이 목사는 급기야 빛쟁이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하게 됐다. "빛쟁이들에게 시달렸는데 하루는 병을 들고 찾아와 행패를 부렸죠. 휘두르는 병이 깨졌는데 병과 편으로 인해 딸아이가 눈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눈 신경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처만 입은 겁니다. 그날 30분 거리인 병원을 찾아간다고 애먹었지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태근 기자)

이 목사가 개척한 상록수명령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기 까지 걸린 기간은 만 8년. 이 목사는 이 비결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했다.

"개척교회 시절 모임에 참석하려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기에 기도와 전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 성령충만을 받고 성령충만 받아 전했고 그래서 교회를 성장 시켰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영적 양식인 말씀을 잘 전해 성도들의 교회 정착을 도왔습니다. 제가 얻은 교회 성장 비결은 말씀과 기도죠."

빛더미에 앉아 앉은뱅이와 같던 이 목사가 빛을 청산하고 당당히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재산 남기고 개척하지 말라는 것이다.

"개척은 죽었다 생각하고 하든지 아니면 부교역자로 남으라고 후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는 것은 언제 일지 모르는데 인내심 부족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목회자가 개척을 해봤자 사모와 자녀들 고생만 시키기 때문이죠" (이태근 기자)



한국 상록수명령교회 담임 이상철 목사. ©이태근 기자

빛더미에 눌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목사는 수련회 참석해 '생명을 취하라'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개척에 나섰다.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 응답을 받고 개척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응답을 주셨고 개척이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아마 그때 개척을 하지 않았으면 더 늦게 개척을 갔을 겁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목회자 특별 리스 상품 세일'

북미 최대 규모 푸엔테힐스 현대자동차(대표 샘 임)는 중소형교회 한인 목회자들을 위해 특별 리스 및 원가 세일(이하 패스터 패키지)을 단행하고 있다.

찰리 정(정영기) 매니저는 "패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란 △목회자이면서 소셜 멤버가 없는 경우, △크리다이 없거나 나쁜 경우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특별 리스 및 저렴한 가격으로 2010년형 뉴 소나타 자동차를 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터 패키지는 목회자 증명서 및 현재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정 매니저는 "패스터 패키지는 대형교회에 비해 자동차 구입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라며 남가주 목회자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패스터 패키지는 현대 아메리카와 무관하며 푸엔테힐스 현대 자체적으로 특별



2010년형 뉴 소나타

히 목회자를 위해 내놓은 서비스다. 아울러 정 매니저는 "패스터 패키지는 한시적인 프로그램이라 목회자들의 호응이 적을 경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푸엔테힐스 현대자동차의 총 부지는 6.8에이커로 800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전시, 판매할 수 있으며 최신 정비장비를 갖춘 서비스 베이도 38개를 갖췄다. 또한 대형 트럭부터 승용차까지 가능한 자동 세차 터널을 두 대 갖췄으며 최첨단 바디샴과 주유대까지 보유해 고객을 위한 윌스탑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락처: 888-212-6431, 213-276-8959

〈지재일 기자〉

충현선교교회 새 성전 완공, 4월 4일 입당 예배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 새 성전이 최근 완공한 후, 오는 4월 4일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린다.

충현선교교회의 새 성전은 예산 규모 5백만 불로 지어졌으며, 1만 6천 스퀘어 피트에 1천여 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

도록 지어졌다.

또 새 성전은 기둥에 한국식 격자와 한국식 창호지 문을 생각나게 하는 난간을 만드는 등 현대와 전통,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이 조화를 이뤄 지어졌다. 민중기 목사는 "현재 쓰고 있는 본당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본당 중간 중간에 기둥이 있어 성도들이 불편을 겪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하던 젊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하지 못했기에 새 성전은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지어졌다"

주택 차압/퇴거 중단

융자 조정 (후불)

- 세컨홈 및 상업용 건물도 가능
- 2차 융자 금액 삭감 (18만불에서 16만불 탕감받았음)
- 다른 곳에서 실패하신 분 환영
- Option Arm 가진 분들, 30년 고정으로 바꿔드립니다

- NOD, NOT 받으신 분
- 융자 조정, 숯세일 실패해서 차압 당하게 된 분
- 차압 (Foreclosure)이 이미 끝나고 Eviction (퇴거 명령) 기다리는 분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NO...NO Short Sale : 저희는 숯세일을 절대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Paul Lee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213.248.9297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3월 29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회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턴)

입적한 법정 스님, 성탄메시지에서 '아멘' 적기도

종교간 화합에 큰 기여

〈무소유〉로 잘 알려진 법정 스님(78)이 11일 오후 1시 52분경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입적한 가운데 그의 '에큐메니칼' 정신도 회자되고 있다. 법정 스님은 지난 2000년 4월 봉헌된 길상사 관음보살상 제작을 독실한 천주교 조각가인 최중태 전 서울대 교수에게 맡기는 등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등과 함께 종교 화합에 기여했다. 또 지난 1997년 12월 길상사 개원법회에故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해준 보답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발행하는 평화신문에 성탄 메시지를 기고했다. 법정 스님은 "예수님의 탄생은 한 생명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낡은 것로부터의 벗어남"이라며 "우리가 당면한 시련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움터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메시지 중간에 성경 구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 등을 인용하면서 '아멘'이라고 적었다.

(이대웅 기자)



건전한 성교육 통해 예방하고 '치유'의 장소 역할 감당해야

제2의 김길태 막기 위해 교회가 할 일은?

부산 여중생 이모양 피살사건 피의자 김길태는 어린 시절, '교회' 앞에 버려졌다. 교회 앞에 버려진 그를 양부모가 입양해 키웠고,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길태'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한다.

김길태가 교회 앞에 버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교회가 많은 이들에 의해 지탄받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희망을 두고 있다. 제2의 김길태를 막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전에방교육 필요 왜곡된 성인지(性認知) 교정해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간범죄 추세가 최근 폭증하고 있다. 2002년 6119건에 불과했지만, 지

난해 1만21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범죄는 피해자 신고율이 6~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범죄 피해율은 그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성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우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부작용을 들 수 있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로 인해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되는 경우다. 성차별적인 문화역시 왜곡된 성인지(性認知)를 낳는다. 사회보호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형량을 무겁게 하는 등 사회적인 제도나 법률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예방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는 "성범죄를 진단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중

요하다"면서 "김길태가 교회 앞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이제 교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범죄만이 아니라 성의식 자체에 큰 변화가 오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교육 자체가 없다"면서 "이제부터라도 교회 내에서 올바른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왜곡된 성지식을 전파하는 매체들로부터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나서 성은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작업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성을 이중적 잣대로 생각하거나 '무조건 보지 말라'는 방식

보다는 성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건전하고 오픈된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현재 가정문화원을 비롯한 가정사역단체들은 기독교 관점에서 건전한 성지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성(性)'과 같은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송길원 목사는 "부모들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했을 때 자녀가 가질 심리적 공허와 소외감 등이 사회적 범죄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답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회는 '치유'의 장소

두상달 장로(가정문화원 대표)는 교회가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주의로 인한 가정파괴는 자녀들에게 돌아올 수 없는 큰 충격을 남긴

다. 두 장로는 "김길태 같은 경우, 자라면서 성격적으로 수많은 상처와 비틀어진 성향을 갖고 있었다. 교회가 그러한 아이를 구원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길태는 자신이 부모에게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가족과의 관계조차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혼자 살아갔다. 두 장로는 "성적욕구에 민감했던 나이 어린 김길태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성적인 공상이었을 것"이라며 "교회가 상처받은 이들을 정서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사명을 다할 때,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가정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마우 총장 "교회가 응급실이라면, 신학교의 역할은"

풀러신학대학교 리처드 마우(Richard Mouw) 총장 초청 총동문의 밤 행사가 15일 오후 서울 광장동 워커히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동문의 밤 행사에는 마우 총장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풀러신학교 이사진들이 대거 방한해 함께했다.

변화하는 시대, 신학 교육 나아가 방향 고민 중

마우 총장은 이날 모인 1백여명의 동문들 앞에서 특강했다. 박기호 교수가 통역한 강의에서 마우 총장은 "앞으로의 신학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신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요즘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신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학교는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시기를 분별해서 일을 할 뿐만 아

니라 교회가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회가 병원의 응급실과 같다고 밝혔다. 마우 총장은 이에 대해 "응급실 의사들은 도서관에 가서 응급 환자에 대한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서재로 가

없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이와 예배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하며 "풀러신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새로운 문화에 젖어있는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섬길 것

히 느슨해졌다"며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내에 신학·심리학·선교학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지 연구하는 리더십센터와 교회 예배 발전을 위해 준비하는 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풀러 이사진들과 대거 방한... 총동문의 밤 가져

서 의과대학에 다녔을 때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응급실에서는 손님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치료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응급 환자를 살리려면 의사들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의과대학과 연구 기관에서는 응급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를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데, 신학 교육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우 총장은 "목회 일선에서도 즉시 결정내려야 할 경우들이 많다"며 "풀러신학교는 목회 현장에 이러한 지혜와 지식, 기술을 전수하고 끊임

인가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각 학문 분야 갈수록 구분 느슨해져... 고무적 현상 한국 성도들이 일상에서 신앙 실천할 방법 연구를

마우 총장은 풀러신학교가 지난 1947년 세워진 이후 1965년 심리학과 선교학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신학을 심리학과 선교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이 3개 대학원이 명확히 구분돼 있었지만 지금은 놀랍게도 그 구분이 상당

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신학 교육을 실시하고, 제3세계 등 풀러신학교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강의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할 생각이 있다"며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계속 연구 중"이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의 역군 중 하나"라고 격려하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 자신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선교학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급속히 변화하고



리처드 마우 총장이 강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통역을 맡은 박기호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교수. ©이대웅 기자

있는 것을 느낀다며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우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드려야 할 분이요,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마우 총장은 "인더우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이 바라본 한국은 매우 이

상한 나라였고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다"며 "20년 후 하나님께서는 평양에 대부흥을 허락하셔서 이 반도 강산 뿐 아니라 아시아 나라에도 그 물결이 전해지게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의 상황도 120년 전 난감했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지만, 그들처럼 믿음으로 인터넷과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웅 기자)

조후연 박사가 인도하는

건강과 치료 大수양회

이곳에 오시면

- 1 은혜가 풍성해지고
- 2 잘 먹고(영양소 골고루)
- 3 열심히 운동하고(실내, 실외)
- 4 푹 쉬고(안식, 온천요법)
- 5 뜨겁게 사랑한다(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 1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 2 기적을 체험하고
- 3 건강이 회복되고
- 4 활력이 넘치고
- 5 하늘을 나는 듯한 체험을 한다



강사: 조후연 목사/박사
자연치유 의학박사(명백) 목회학/목회신학박사 오아시스 치료 선교회 회장 아가침사 후원회 대표 크리스천의 바른 먹거리 저자

특별 혜택

- DNA 파동검사를 무료로! (검사비 기본이 200\$)
- 크리스천의 바른 먹거리 저자 싸인 기증
- 특허 또는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제공, 영양제, 다이어트
- 개인별 식이요법
- 라이드 하신분 2회 무료 온천
- 온천사랑 건강 동호회 가입
- 도네이션, 기부금 세금 공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것이다

믿음·소망·사랑
건강·풍요·선교



일 시 : 2010년 4월11일(주일) 오후4시~4월15일(목요일) 오후2시 (4박5일)
장 소 : 팜스 온천장(Desert palm spa Motel)
67485 Hacienda Ave, Desert Hot Springs CA 92240 (760-329-4443)
※가는길 : L.A에서 10번 동쪽으로 약 90~100마일 > palm Dr로 나가 좌회전 > Hacienda에서 우회전
회 비 : 4인실 \$470, 2인실 \$550
준비물 : 성경, 찬송, 필기도구, 수영복, 운동복, 세면도구
참가자 : 30명 선착순, 회비 접수순

DNA 파동 검사

머리털 1~3개로 인해 모두의 건강과 질병상태 그리고 마음까지 검사하는 최첨단 과학기법이다. 기계는 거짓말도 못하고 요령도 피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알려준다. 또 자연치유법을 제공해준다. 등록자는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비영리 법인 오아시스 치료 선교회
The Oasis Healing Mission

213 W. Providencia Ave, Burbank CA 91502
818. 815. 9627 818. 926. 4642

송금: The Oasis Healing Mission
주소: 옆 주소로 기입하세요.
※은행 Check로 송금해 주시는 순서대로 접수가 됩니다.

“최고의 기독교문화’ 창조로 교회 부흥과 국민 통합을”

‘The BIBLE EXPO 2010’ 준비위원회 발대식

세계 최고의 기독교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이를 널리 알려 생명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빛을 전하는 취지의 ‘The BIBLE EXPO 2010(대 회장 이광선 목사)’이 한국에서 열 릴 예정이다.

‘The BIBLE EXPO 2010’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 희망의 빛’이란 주제로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인천 송도센트럴파크(100,000m)에서 열린다. 이번 엑스포는 인류 최고의 기록물인 성경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조직위원회는 성경 속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바이블 테마파크’를 꾸민다는 계획이다.

‘The BIBLE EXPO 2010’ 조직위원회(더 바이블 엑스포, 조직위원장 김영진)는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발대식 및 제작발표회를 갖고, 더 바이블 엑스포를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파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계와 사회 각계지도자들 1천여명이 참석했고, ‘최고의 기독교문화’를 구호로 내건 만큼 교계 행사로서는 전에 없이 성대하

게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딤후 3:15-17)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고 2부 조직위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전한 이광선목사는 “한국교회가 침체에 빠지고 전도의 문이 닫혀가는 현실과 정치적 혼란, 사회적 해체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The BIBLE EXPO 2010’은 교회 부흥의 문을 활짝 열고 국민 통합과 화합에 새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선 목사는 “‘The BIBLE EXPO 2010’는 사람이 식어버린 이 땅에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 우리 민족이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며 “60년 전 인천상륙작전이 민족을 살린 것처럼 ‘The BIBLE EXPO 2010’는 복음상륙작전으로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의 뜨거운 열기로 한반도를 덮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영사를 전한 김영진 조직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종파를 초월한 사랑과 화합의 축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엑스포로 발전시켜 새로운 한류 창출과 문화관광산업 발전

에 일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이 외에도 CBS이 재전 사장이 환영사, 전용태 장로(공동집행위원장/세계성서화운동본부 총재)와 임동진 목사(공동집행위원장/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격려사, 노승숙 장로(국민일보 회장)가 축사, 김성래 회장(총괄제작위원장)이 답사를 전했고, 김종필 회장(The Bible Entertainment)이 경과보고 및 내빈소개를 했다.

조직위원회는 또 엑스포 홍보를 위해 영화배우 신현준 씨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니 씨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그리고 엑스포 때 선보일 다양한 문화공연도 이날 최초 공개했다. 특히 러시아 볼쇼이서커스단의 바이블서커스와 빛 구조물과 LED아트, 3D 입체 바이블영화 등이 첫 선을 보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화환 대신 사랑의 쌀 모금을 통해 모은 기금을 정준호의 사랑의 밥차,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봉사단체에 기증하는 행사를 진행, 엑스포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류재광 기자)



방지일 목사, 이광선 목사, 최성규 목사, 강신권 목사, 전용태 장로 등 바이블 엑스포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0 부활절연합예배 설교, 이영훈 목사로 내정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설교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로 내정됐다. 준비위는 17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

최근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2008년 김삼환 목사, 2009년 오정현 목사가 설교를 맡았었다. 이밖의 순서자로는 한기총 대표회장 이

광선 목사가 대회사, NCKK 회장 전병호 목사가 환영사, 한기총 총무 김운태 목사와 NCKK 총무 권오성 목사가 ‘남북교회 공동기도문’ 낭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웅 기자)

‘하나되는 기쁨’ 실태 고발 세미나... ‘관계자 퇴출하라’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나되는 기쁨’이 쾌락을 통해 창조주를 만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단적이고 이교적 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원 기자

“쾌락 통해 창조주를 만난다는 이교적 서적”

이 기사에는 ‘하나되는 기쁨’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책 내에 있는 노골적 표현들을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이 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한국기독교이단문제연구소(이사장 심영식 장로)와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등 10개 평신도 단체가 성경을 성행위교본으로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적 ‘하나되는 기쁨’과 관련, 1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실태를 고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최인기 박사(서울장신대 구약학교수), 이광호 박사(조예성경연구원장), 원용국 박사(안양대 명예교수) 등이 강사로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나되는 기쁨’이 성도들로 하여금 쾌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이단서적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특히 이 책에는 쾌락이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이라는 이교적 주장도 들어있는 것으로도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최인기 박사는 ‘아가서의 바른 해석과 하나되는기쁨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해석은 은유적 해석(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며 아가서 1:1-6:9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간절히 사랑하다가 신랑이 떠나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아가서 6:10-8:14은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 사랑을 지속함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승천에 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아가서를 사랑 노래라고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성과 성적행위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가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부 사이에서 허락된 성적행위는 성의 일부이지만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성과 성적행위가 숭배되는 것은 이교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최 교수는 ‘하나되는 기쁨’이 아가서의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적행위에서 파생되는 ‘애무’ ‘오르기’ ‘애액’ ‘정액’ ‘오럴섹스’ 등의 단어들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며 성적행위를 통한 쾌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는 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섹스교에서 성적행위를 통해 신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박사는 ‘성경 해석과 이단’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하나되는 기쁨’에 대해 “성경

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특별히 계시하신 거룩한 책이기에 말씀을 왜곡해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 책은 불건전한 비윤리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서적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 책의 저자가 국내의 복음주의 사상을 가진 상당수 신학자들이 아가서를 성경적인 내용에 관련지어 해석한 다면서 정당화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정통 신학자들이 그런 식의 성경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라면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그런 식의 참람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박사는 ‘아가서의 교훈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가 부부사이와 같이 긴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도바울은 음행과 은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교훈했음에도 이 책은 성경에 대한 모독과 본문을 왜곡하는 이단적인 사상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최단체들과 참석자들은 이단서적의 즉각적인 폐기와 관련자들의 가정사역활동 중단 및 한국교회로부터의 퇴출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대원 기자)

기독교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 하는

2000년전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6박 7일**

~~\$2800~~ → **\$2450**

○ 방문지: 텔아비브, 예루살렘, 마사다, 쿨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들레헴, 가이사라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 **\$2800**

○ 방문지: 카이로, 시나이산, 타바, 에일랏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사해, 쿨란, 텔아비브, 음바, 갈릴리, 가버나움

기독교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1.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2.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뱃산으로의 국경통과시, 실로암 입장료

3. OPTION
시나이산 낙타등반, 흥해해서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요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ST # 2052210-10

아주관광 **이주관광**

www.usajutour.com

Tel. 213-388-4000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이민개혁 추진단체들,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이민 개혁 추진 촉구

3월 21일 워싱턴 디씨에서 대규모 이민 개혁 촉구 집회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1일 오바마 대

통령은 이들 단체와의 회의 외에 도 슈머/그라함 상원의원 및 히스패닉 의원 총회와의 회의를 추진하는 등 이민 개혁을 위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수년 간 이민 개혁 캠페인을 전개해 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3월 21일 워싱턴 디씨 10만 명 집회를 알리기 위해 지난 8일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 백악관 회의가 성사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공동 노력으로 백악관과 의회에 압력을 행사한 것과 같이 이민 개혁이 미국의 경제회복과 안정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미국의 일반 대중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전국에서 약 150명의 한인들을 조직해 워싱턴 디씨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락처: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조요한 기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전국에서 약 150명의 한인들을 조직해 워싱턴 디씨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락처: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조요한 기자)

3월 21일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이민개혁 촉구집회

령은 이민 개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커뮤니티 단체,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민 개혁에 관한 회의를 가

졌다. 오는 3월 21일 워싱턴 디씨에서 10만 명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회의 이민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민 개혁을 위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단체들의

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상정 이후 이를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민 개혁 달성이 그리 쉽지 않은 것임을 재차 언급한 오바마 대

한인 여성들, 동남아 전도부인 위해 걷는다

미국에 한인 여성들이 동남아 현지 여성들의 선교활동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한다.

북조지아한인연합여성선교회(회장 이춘희)에서 주최하는 제 5회 선교를 위한 발걸음 'Walk-A-Thon' 행사가 27일 열리는 것.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 한인감

도부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들이 복음전파에 나서지 않았다면 선교사님들만의 힘으로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복음화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복음의 빛진 심정'으로 이 일을 위해 각 교회에서 행사에 동참하고 개인, 단체 헌금을

북조지아한인연합여성선교회 주최 제 5회 Walk-A-Thon 스와니에서

리교회 여성선교회가 연합으로 선교를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중국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여성 신학생들을 돕고, 특별히 가정 주부들도 자신의 고유 언어로 전도에 앞장서는 '전도부인'의 생활을 도와 복음전파에 전적으로 힘쓸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Walk-A-Thon' 행사는 오전 9시 30분에 Suwanee Greenway Park, Alder Pavilion에서 시작되며 간단한 찬양과 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과 함께 2-3마일을 걷는다. 이후 점심식사를 하고 순서를 마칠 예정이다. 예배 설교는 송희섭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 축도는 남궁전 목사(베다니감리교회)에서 맡는다.

이춘희 회장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파되는 과정에서 전

(박현희 기자)



2009 선교의 발걸음 행사를 마치며

CNN도 주목한 친필성경, 불치병도 나왔다

최병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 담임)가 사순절 동안 진행하는 친필성경쓰기 운동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지난해 부활절 아침 CNN에도 소개된 바 있는 베다니교회 친필성경쓰기 운동은 교인 200명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성경을 쓰는 운동으로 약 1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최 목사는 "사순절 기간 교회에서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다 써보아겠다고 결심한 후 불치병이 나온 한 일본 성도의 간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친필성경쓰기를 교회에 도입했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놀랍게도 친필성경쓰기를 시작한 첫 해, 그러니까 약 15년 전 필라델피아에서 동일한 기적이



지난해 봉헌했던 친필성경

베다니장로교회 사순절 기간 친필성경쓰기 운동 진행

일어났다. 교통사고를 당해 5분을 앓아있지 못하던 한 성도가 친필성경쓰기를 한 후 손자를 업고 교회에 나올 만큼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최 목사는 "교통사고 후 마디마디가 아파 5분을 앓지 못하고 늘 누워계시던 성도 한 분이 있었다. 주일에 집에서 설교테이프를 들던 중 친필성경쓰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는데, 희한하게도 성경을 쓰는 동안에는 아프지 않아 5분 이상도 거뜰히 앉아있었다"면서 "그러다 40일 후 자기 분량의 성경을 다 쓴 후에 완전히 나아, 손자까지 업고 다니실 정도였다"고 간증했다.

최 목사는 "친필성경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성경을 적어나가면서 깊이 묵상하게 될 뿐 아니라, 서기관들에게도 임하셨던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친필성경쓰기는 한어부 뿐 아니라 영어부(EM), 청소년부, 유년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권나라 기자)

'용기있는 국제여성상' 수상한 이애란 박사 뉴욕 방문

탈북난민보호뉴욕협의회, 13일 뉴욕 방문 환영회 개최

탈북난민보호뉴욕협의회(회장 손영구 목사)는 미 국무부가 주는 올해 '용기있는 국제여성상'(Award for International Women of Courage)을 수상한 탈북여성 1호 박사 이애란 경인여대 교수 뉴욕 방문 환영회를 13일 오후 산수감산 2한인 식당에서 개최했다.

'용기있는 국제여성상'은 매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전후해

미국무부가 여성의 인권과 권익 신장에 기여한 전 세계 여성 지도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애란 박사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기회를 주셔서 탈북자 대학생 영어공부와 영적 각성을 위해 성경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박사는 북한에서 조부모가 월남한 지주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족들과 같이 추방당해 양강도 삼수군 오지로 추방돼 살다 1997년 북한을 탈출해 작년에는 탈북여성 최초로 이화여대에서 식품영양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3월부터 경인여대 식품영양조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북한전통



탈북난민보호뉴욕협의회는 13일 이애란 박사 뉴욕 방문 환영회를 개최했다.

음식문화연구원을 세워 탈북 여성과 학생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

행사는 손영구 목사의 사회로, 한재홍 목사(뉴욕신광교회)가 기도, 방지각 목사(뉴욕효신교회 원

로목사)가 설교, 임원 일동이 축하 케이크 커팅, 최창섭 목사(대뉴욕 지구한인교회협의회 직전 회장)가 헌금기도 및 축도했다.

(오상아 기자)

주제 : 법률 강연 및 상담

이문규 법률 그룹은 글로벌비전뱅크(대표 이길소 선교사)와 함께 미주성산교회에서 제1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최: 로스앤젤레스 교역자 협의회 회장(표세홍 목사)
The los angeles council of korean churches

문의 : 미주 성산교회 213-975-1111, 이문규 법률 그룹 213-380-2828

시카고 구세군 “한인사관 공로 인정”

오는 14일 김민제, 손연숙 사관 특별공로상 수상

시카고 지역에서 구세군이 사역을 시작한 125년을 기리며 개최하는 “Jubilee 125”에서 구세군 메이페어커뮤니티교회의 전신인 구세군한인영문을 개척한 김민제 사관과 손연숙 사관이 특별공로상을 받는다. 구세군 측은 “Jubilee 125” 행사에서 “7명의 신앙의 영웅들”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하며 이 중 부부인 김민제 사관과 손연숙 사관은 중서부의 유일한 한인 구세군 영문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상을 수상한다. 김 사관과 손 사관은 1971년 사관으로 입관해 구세군 대한본영 비서실과 사관학교 교관, 섭외부

서기관을 거쳐 미국 LA 한인영문, 시카고 한인영문, 디트로이트 한인영문을 개척하는 등 구세군의 한인 사역에 크게 기여했다. 두 사관은 1988년 12월 구세군한인영문을 개척해 7년간 묵회하다 디트로이트로 떠나 또 한인영문을 개척했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는 김 사관이 한국 구세군사관학교장, 서기장관 등을 역임했다. 김 사관은 구세군한인영문에서 묵회하던 당시, 트리니티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호윤 전 도사를 구세군인의 길로 인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장호윤 사관은 김민제 사관의 뒤를 이어 1995년부터

구세군한인영문, 현재 메이페어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 이번 “Jubilee 125”는 3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기도와 찬양의 밤”부터 시작된다. 구세군노리지영문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지방령대장 데이빗 그린들 사관이 설교한다. 두번째 행사는 위튼칼리지에서 3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성경예배부터 시작된다. 이 행사에는 시카고 지역의 30개 구세군 영문에 속한 2천명의 구세군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구세군의 총사령관인 이스라엘 게이더 사관이 설교한다. 이 예배에는 120명으



김민제 손연숙 사관

로 구성된 연합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메이페어교회에서도 30명이 참여한다. 오후 3시부터는 “The Great Salvation Experience” 행사가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김민제, 손연숙 사관을 포함한 7명의 사관이 특별공로상을 수상한다.

(김준형 기자)

“예배 회복만이 살 길” 나이스크 기도대회

지난 12일 제자들의 교회에서 개최

예배회복운동 나이스크 중부분부가 지난 12일 바틀렛의 제자들의교회에서 “제2차 예배 회복을 위한 나이스크 중부분부 기도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는 나이스크 GRI(Goshen Research Institute) 리더인 주성철 목사가 말씀을 증거했다. 주 목사는 삼상7:3-21 말씀에 근거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예배다. 우리 삶 속의 온갖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자”며 “이것이 나이스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안형기 목사가 “전세계 220개국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길”, 어태용 목사가 “예배 회복을 통해 무너져 가는 교회와 강단이 부흥하길”, 김정하 목사가 “주님이 세운 종들의 영권이 회복되길” 기도했다.

본부장 김기철 목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중부분부에 속한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지난 12일 예배 회복을 열망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기도대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남아공 로잔대회에 참여하자

올해 열리는 전세계 복음주의자들의 대회에 시카고 한인교회들도 IT기술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로잔 3차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링크(GlobaLink) 프로젝트 덕이다. 로잔위원회는 이번 대회 공식 사이트(www.lausanne.org/cape-town-2010)를 통해 세

의 발달을 활용해, 전 세계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교회들의 이번 대회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있다. 가입에 요구되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글로벌링크 등록 사이트가 되는 순간, 세계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 단체, 학교가 로잔대회의 현장

된다.로잔위원회는 글로벌링크에 가입한 각 사이트들에 이번 로잔 3차대회와 관련한 주요 문서들과 자료들은 물론, 비디오와 오디오 파일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링크 가입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으며, 다만 사이트 프로그래밍과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로잔 3차대

체, 학교의 사이트를 글로벌링크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로잔 3차 대회는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고후 5:19)을 주제로 개최된다. 로잔위원회 더그 버드셀 총재는 이번 주제 선정에 대해 “이 세대의 교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더 효과적인 세계복음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번 로잔대회가 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글로벌링크를 통해서 이번 대회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에 관련된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준형 기자)

글로벌링크, 의제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주요 자료 제공

계복음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교회, 단체, 학교들이 오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릴 로잔대회에서 다룰 의제들에 관한 사전 대화(pre-conversation)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로잔위원회는 세계 선교에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IT 기술

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링크에서 토론된 내용은 그대로 오는 10월 열리는 대회의 논의에 반영되기에, 글로벌링크는 전세계 지역 교회들과 기관들이 이번 로잔 3차 대회에서 다루고 결정할 큰 틀의 복음 선교 전략과 방안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회 후원금 형식으로 받고 있다.

글로벌링크 의장인 빅터 나가 박사는 “글로벌링크는 그리스도의 거대한 한 몸인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마주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여러분의 교회, 단

미국 앞에 한국 문화를 “노래로 펼친다”

노스이스턴대학교가 4월 둘째주 개최하는 “Asian Heritage”의 첫날인 4월 5일 “Korean Heritage”에서 엔젤스합창단이 노래를 통해 한국을 소개한다. 한인들을 위한 날이며 동시에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유산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이날, 엔젤스합창단은 학교 내 알라미야 오디토리움에서 저녁 7시 30분 한국 민요, 가곡, 가요를 연주한다. 엔젤스합창단과 함께 출연하는 시카고코리아앙상블은 국악 연주를 맡는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을 기리는 간호사들로 구성된 엔

젤스합창단은 기독교합창단은 아니다. 재미중서부한인간호사협회 내의 합창단으로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단원 34명이 모두 기독교인이며 지휘는 2008년부터 갈릴리교회 신정철 협동목사가 맡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노스이스턴대학교 입장에서는 노래로 한국을 만나지는 자리지만 합창단 입장에서는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겸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엔젤스합창단은 각종 행사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독자적으로 연주회를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뜻깊다.

“음악으로 교회와 사회 섬긴다”

찬양컨서바토리 개강예배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음악인, 교회에 필요한 음악 사역자 양성을 위해 2008년 개교한 찬양컨서바토리가 2010년 봄학기 입학식 및 개강예배를 드렸다. 15일 갈릴리감리교회에 모인 교수진, 학생 등 40여명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 성도와 사회를 섬길 것을 다짐했다. 이번 학기에는 성악, 피아노, 작

곡, 지휘, 기타, 드럼, 키보드, 오르간, 색스폰 등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총 14주간동안 개인 레슨을 받는 형식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학기에 새롭게 등록한 신입생은 18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학기의 재학생은 60명이었다. 교수진은 학장 이경희 목사, 디렉터 전성진 목사를 비롯해 이택근 목사, 신정철 목사 등 음악을 전공한 목회자들과 현재 음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교수



찬양컨서바토리의 교수, 재학생, 신입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을 했다

활동 중인 전문 음악인들이 포진해 있다. 이날 예배에서는 성악, 색스폰, 오르간 학과의 2학년 학생들이 나와 독주와 이중주를 선보여 참석

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설교는 이경희 목사, 기도는 신정철 목사, 축도는 이택근 목사가 맡았다.

(김준형 기자)

LAX MEDIA (SKC) / SKmax TONER INC

- SKC 설교/찬양 COPY용 CD-R
- Custom Screen Printing Service & Packaging Service
- Taiyo Yuden Blank CD-R판매
- 3UP CD Label 판매
- 각종 case & accessory 판매

Philips License 획득한 정품 CD-Rs.

CD DVD 복사기

- 1Year Warranty & Lifetime Technical Support

SKMAX TONER는 hp brother Canon SAMSUNG EPSON I.F.X.M.A.R.K. D.C.I.L.

- Powder만을 Refill에 판매하는 문제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 Powder Refill 제품 구매로 프린터 작동 이상이나, 프린팅 용량 부족의 문제점 발생이 없습니다.
- * 100% 품질 보증 !!!, 100% Satisfaction Guaranteed!!!!
- (문제 발생시 100% 교환 및 환불 보증) -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 가격이 싸서 구매했던 Toner 제품의 품질에 불만족 하신분
- 저가 Refill 제품의 프린팅 용량 부족으로 불만족 했던분
- 제품 구매후 After Service에 불만족 했던 분
- 믿을 수 있는 제품 생산 및 공급 회사를 만나지 못했던 분

SKMAX Toner로 연락 주세요.
최대 60%까지 비용 절감 해드립니다.

Hot! Hot! Hot! Special Sale Items!

LAX Media, Inc. (SKC 미주 서부 총판) 944E Pico Blvd. #4 Los Angeles CA 90021
TEL. 213-749-0909, 213-718-3189 email : laxmedia@yahoo.com

GLOBAL VISION BANK

글로벌비전뱅크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새 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홍 목사

김승욱 칼럼



김승욱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처럼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주

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때이며, 그 후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다가 마침내 영광스런 주님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중세기 때 기독교 안에 지나치게 미신화 된 요소들을 보며, 기독교 개혁자들은 여러 의식과 절기를 더 이상 강조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당시 배경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잃게 된 기독교 영적 유산도 없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때 우리가 하는 것은 집중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로 희석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 번 예수님께 포커스 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

선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나의 시간과 정서를 채우고 있던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별하여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스포츠 관람에 남보다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면 이 절기동안 스포츠를 안 보

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으로 인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면, 꼭 필요한 쇼핑 외에는 자제하겠다고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려면 먼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쓸 때 없는 가지들을 쳐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함께 육체의 훈련을 쌓을 수 있는 때입니다. 사순

절 기간 동안 새벽기도를 작성하거나, 정기적으로 금식하거나, 아니면 육식을 금하는 모습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눅 9:23) 그러나 현대사회

로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순절은 또한 묵상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 금욕의 훈련과

을 받게 되십니다. 그 때 주님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시나 보십시오.(마 4:1-11) 놀라운 통찰력과 파워가 보입니다. 단번에 마귀를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순절 기간엔 우리 또한 전에 몰랐던 말씀의 능력을

사순절의 의미 (내려놓음, 훈련, 묵상의 기간)

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입고 즐기는 곳이 아닙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부인하며 산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지 쌓고 있으니, 조용한 시간을 비교적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맑은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 40일 금식을 마쳐셨을 때 마귀의 시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포커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엔 2월 17일에 시작되어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모두 더욱 집중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려놓음과 육체의 훈련과 깊은 묵상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십자가를 집중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한 분의 아버지를 TV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킨 김연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을 보니 그냥 평범하게 생긴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분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10

모로서,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연아를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한 가장으로 금전적인 문제, 기러기 아빠, 큰 딸을 보살피는 엄마 역할, 집에서 식사와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처럼 사는 것'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일상을 세계적인 스타가 된 피겨여왕의 아버지는 간절한 소원과 소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처럼 사는 것' 이것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남들이 우려해보는 것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흉내 내지 못하는 자랑, 특별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고단한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은 영적(Spiritual)이란 단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평범한 삶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보다 평범한 인간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점과 실수와 허물투성

문광수 칼럼



문광수 목사 워싱턴예원교회

이인 평범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큰 인물로 쓰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의 평범한 삶을 쓰시길 원합니다. 단순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보화가 있음을 느낍니다. 자신에게 주신 믿음, 순종, 충성, 봉사, 인내, 성품, 기질, 은사 등등 모든 평범한 것을 하나님께는 들어 쓰십니다.

화려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평범한 시골 목수의 가정으로 오신 주님,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아끼고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평범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한 아버지의 소원

년 이상 딸을 지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똥박에도 그 아버지는 "저는 평범한 가족처럼 사는 게 소원입니다. 솔직히 말해 가족의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이제는 다른 가족들처럼 모두 모여 사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라고 부

야 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아! 저 부모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아마도 더 이상 소원이 없을꺼야?"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반대로 김연아 아버지가 바라는 소원은 너무나

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늘 지적하고 느껴지는 반복적인 일상인데 이것을 가장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한 아버지의 모습에 한구석 마음이 찡하였습니다. 평범한 삶이 행복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해 줍니다.

이기범 칼럼



이기범 목사 스포켄인장로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자객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며, 그 분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 자신은 초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만

자유로워지기를 포기했습니다. 사소한 염려와 비판적인 의혹에 갇혀서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상이 늘 어두웠으며, 걱정 많은 환자처럼 규율과 규칙에 매였습니다. 나누어주는 즐거움을 몰

은혜의 3단계

된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탕자(눅15장)는 자기 자신이 행한 잘못이나 죄가 무거웠지만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관용, 변함 없는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랐고, 안고했으며, 늘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원망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자학했습니다. 은혜를 소멸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으며, 심지어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삶의 기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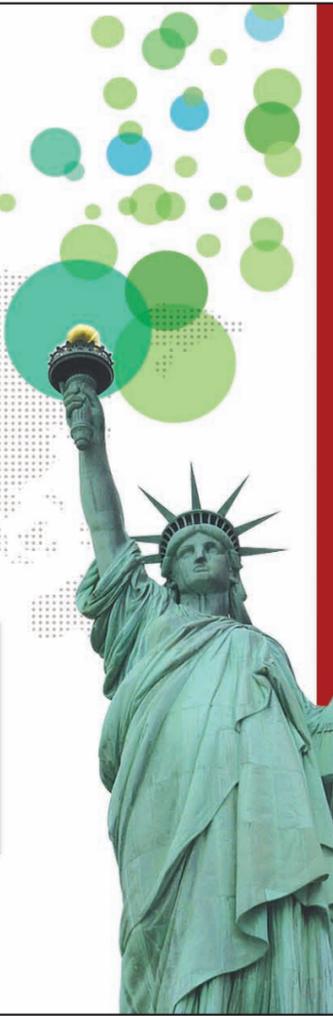
희망을 짓밟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개 조차 들 수 없는 나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해서 가슴이 떨립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찬 것만 같습니다. 세상 만물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것이 1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단계입니다. 비가 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듯,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욕심과 위선과 음탕과 헛된 자랑과 허망한 생각들을 직시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토해내고 싶어집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가 바로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헌신하고 싶은 열망을 품게 됩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종이 되어 행복해지고, 주님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빛을 쬐는 생각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롬1:14-15)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나의 생을 이끄는 것입니다. 스포켄에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계절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WWW.UKOPIA.COM

미국이 보인다!



- 유코피아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는 메인페이지
- 재밌는 뉴스, 정보 가득한 미국가이드, 튀는 칼럼
- 손쉽게 찾아보는 미 전역 한인업소 정보
- 알차고 독특한 미국 여행 정보
- 365일 계속되는 경품이벤트
- 미국 대표도시들의 길라잡이 시티가이드
- 할리웃 스타들의 세계를 소개하는 유코PIA사이트
- 미국생활/관광의 할인 쿠폰이 "팡팡"



봉승전 칼럼

지루성 피부염과 탈모



봉승전 원장
경희한방병원

“A씨는 매일 머리를 감아도 비듬이 많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양복을 입는데 비듬이 어깨에 항상 하얗게 앉아있으니 청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가능성 샴푸를 사고 이것저것 바꿔보았지만

별로 나아지질 않았습니니다. 더구나 요즘은 가려움도 심해지고 살이 빨갛게 올라와 수시로 머리를 긁게 되고 머리카락도 잘 떨어져 더 고민이 많아집니다.”
A씨와 같이 머리에 비듬이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 참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샴푸나 에센스를 챙기며 부지런히 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피가 건강하다면 비듬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비듬은 두피가 건강하지 못할 때 건성의 피부에서는 하얗고 얇고 조그만 형태로, 지성의 피부에서는 누렇게 두텁고 크기가 큰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한 비듬은 지루성 피

부염의 초기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 및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피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분비의 과잉 혹은 원활한 배출이 안 돼 생깁니다. 피지선은 모낭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의 진행 될수록 모낭은 정상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모발은 약화, 탈락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지루성 피부염은 심화되고 탈모로 진행됩니다.
초기 - 비듬
1) 피지분비과다 - 두텁고 누

린 비듬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두피가 가렵고 귀 뒤쪽에 노란 비듬이 생기며 만져보면 끈적끈적합니다. 간혹 진물에 의해 생긴 누런 딱지들이 머리에 만져집니다. 머리를 며칠 못 감으면 냄새가 납니다.
2) 피지분비역류 - 피지가 모낭 밖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모근 안에 정체됩니다. 정체되면서 두피는 붉어지고 건조해집니다. 비듬도 건조하고 딱딱하며 크기가 처음엔 작다가 증상이 진행 될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군데 군데 가렵게 되지만 가려움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중기 - 염증 진행
두피는 전체적으로 붉어지고 예민해집니다. 가려움은 심해지고 머리카락은 잘 떨어집니다. 비

듬은 더욱 증가하며 모낭이 피지로 막혀 모낭염이 발생하여 농포가 부분적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두피활영기로 확대하여 보면 모근주위로 인설이 많이 발생되어 있으며 피지나 각질로 막혀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 떨어지고 가려움으로 인해 자주 긁게 되며 염증이 회복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말기 - 감염, 염증의 심화, 탈모
전체적으로 벌겋고 군데군데 붓고 진물, 악취가 납니다. 가려움으로 긁게 되고 피부는 약하여 쉽게 상처가 나며 세균 감염에 의해 증상이 악화됩니다. 각질 탈락은 전체적으로 일어나 비듬이 아닌 두꺼운 가피가 함께 탈락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를 벗어나 목, 이마, 귀 뒤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염증으로 인해 두피는 손상되고 회복력이 떨어져 모발의 성장이 저하되어 빨리 자라지 못하고 머리카락은 얇아집니다. 모근이 약해져 모발탈락이 되고 탈모가 진행됩니다.
두피 지루성 피부염은 말기 단계로 진행되게보다 초기, 중기 단계에서 정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말기 단계로 악화되면 탈모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 말기의 지루성 피부염이 진정된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모낭의 기능은 부분적으로만 회복되어 모발 수가 그 전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지루성 피부염 여부를 진단하고 진행상황을 보아 관리 및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순칼럼



백순장로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미국은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21세기를 들어서는 2000년대초부터 들리더니, 최근에 와서 정치계와 경제계 그리고 지식인층사이에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에게서도 들려 오고 있습니다.
오바마대통령자신이 여러 자리에서 미국이 경제 및 기타 영향력이 감퇴하여 “2등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피력한 바 있고, 조 비덴부통령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쇠퇴를 점치고 있는 것이 과장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수장스럽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반 베이상원의원은 금년 재선출마를 안할 것을 선포하면서, 미국정치제도, 특히 미국의회제도의 붕괴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2월 4-8일 1,004명을 대상으로 Washington Post-ABC News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에서 “20세기는 미국의 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21세기에 미국이 세계정사와 세계경제에 대한 역할이 20세기에 비해 동일할 것인가, 클 것인가, 적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던져줍니다. 놀랍게도 세계정사와 세계경제에 대하여 미국의 역할이 ‘클 것’이라는 대답이 32%와 26%인 반면, ‘적을 것’이라는 대답이 46%와 53%으로 높게 나타나, 미국지배력감퇴론이 심상치 않은 주장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미국발로 세계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으며, 오바마행정부의 각종 개혁안들이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로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현황이 미국 쇠퇴론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911사태 이후 국제 테러리스트를 섬멸하기 위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의 끝을 아직도 맺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관계분야에서 북한핵과 이란핵문제를 유엔을 통하여 제재하는 수준이상으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미국 쇠퇴론의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 쇠퇴시나리오는 미국경제력과 미국정치력(외교력)의 상대적인 감퇴라는 2

가지 근거에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강대국으로 흥하고 망하는 세력의 흥망은 바로 경제력과 정치력의 흥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쇠퇴론을 논하는 설명은 크게 나누어 역사적 고찰과 비교적 고찰 등 2가지입니다.
역사적 고찰은 과거 거대한 강대국의 멸망사를 살펴 볼 때에 현

으로나 정치력으로서나 세계최대 강국이었고 아직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최근 금융위기로 시작한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력의 약화나 의료개혁안 등 주요법안의 의회계류 등 정당 정치의 비생산성으로 인한 정치력의 비활성화로 말미암아 21세기에는 세계경제나 세계정사에 그리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

는 중국의 세기라는 비교적 고찰은 중국의 세력, 즉 경제력과 정치력이 놀랍도록 급성장하고 있는 데에 기인합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보여준 2차 리수의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할 것 같으면 중국의 경제는 21세기 중반쯤 되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앞질러 세계제1경제대국이 된다는 예측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된다는 논리입니다.
역사적 고찰이나 비교세력적 고찰이 제창하는 강대국 쇠퇴론과 미국 쇠퇴론의 근거인 경제력 약화와 정치력 비활성화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강대국의 멸망사나 미국의 흔들리는 세력을 관찰 분석하여 보면, (1) 경제력을 과도하게 군사력으로 소모하고 (2) 사적 부의 축재가 도를 지나치게 될 때에 강

미국 쇠퇴론과 하나님의 강국원리

나 하는 것이 역사적 고찰을 통한 미국 쇠퇴론의 주장입니다.
비교적 고찰은 지난 20여년 전부터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세력과 대비하여 미국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감퇴하게 될 것이며 세계정사와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적인 역할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고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Washington Post-ABC News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배적인 역할 측면에서 21세기는 미국의 세기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중국의 세기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미국의 세기”라고 생각한다는 답이 세계정사와 세계경제면에서 각각 38%와 40%인 반면, ‘중국의 세기’라고 생각한다는 답이 43%와 41%로 전자의 답보다 얼마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20세기는 미국의 세기, 21세

고 할 정도로 거대한 제조산업과 수출, 자원 확보를 위하여 세계를 누비는 경제외교, 세계 금융계에 무시 못할 힘을 과시하고 있는 수조 달러의 소버린 자금(Sovereign Fund)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제도는 아직도 공산당의 정치를 하고 있지만, 뉴욕 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공산당의 정권 독점 정치에 장점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당독재 정치는 그의 취약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중국의 경우와 같이, 이성적으로 계몽된 지도 그룹에 의하여 운영되게 되면 놀라운 위대한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에 비교하여 미국은 경제력이나 정치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비활성화되어 21세기를 중국에게 그 지배역할을 내어 주게

한 경제력이 약화하게 되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3) 권력 교만에 빠지게 되고, (4) 편파적인 세상 권력 행사에 치우치게 되면, 그렇게 왕성했던 정치력이 비활성화되어 멸망의 치닫에 된다는 것이 역사적 및 비교적 고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국가의 경제력의 강화와 정치력의 활성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는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면 왕권(국가) 건립을 허락하시면서, 국가 건립에 필수 불가결한 강국원리를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경제력 강화와 관련하여 (1)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2)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속)

성경에 나오는 용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용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생소한 용어 1500개를 비롯해 총 1800여개의 난해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어려운 용어 발췌
주요 영어성경을 참조해 한글, 한자, 영어동시 표기
용어가 등장하는 성경구절 명시
수첩크기로 휴대 용이 (어려운 용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_____ 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싸인) _____
가격 텍스포함 10불
전화, 팩스, 메일로 신청 받습니다.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90010
TEL : 213 739 0403 / FAX : 213 739 0408

성경 번역, 무지에 사로잡힌 시대를 인도하다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성경 번역이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

개혁을 주장하는 루터주의자들에 의해 교황과 미사를 반대하는 글이 나붙는 벽보 사건이 일어난다. 그 내용은 “매번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시켜서는 안되며, 우상적인 교황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의 성찬을 반대하여 만들어진 교황주의적 미사의 소름끼치고 용납할 수 없는 남용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벽보는 파리 전역과 프로방스와 앙부와즈(Amboise), 오를레앙, 심지어 왕의 침실 문에까지 붙게 된다. 벽보의 글은 기욤 파렐의 친구이며 스위스 뉴샤텔(Neuchatel) 교리 프랑스인 목사 앙투완 마흐꾸흐(Antoine Marcourt)가 작성하고, 뵘에 드 뵘글(Pierre de Vingle)이 인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샤텔 교회는 1530년에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신교로 바뀌게 되고, 미사가 폐지되고 성상(聖像)의 우상들은 파괴된다.

당시 프랑스 왕국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왕, ‘하나’의 종교만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 개념은 절대 왕권을 유지하려는 왕과 하나의 종교를 통해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치적 종교 지도자와의 절묘한 균형으로 이루어진 합작품이다. 파비아 전투 이후 왕권이 약해진 프랑수와 1세는 실추된 왕권 회복을 위해 상대적으로 강해진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벽보 사건의 주동자는 물론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화형시켰으며 감옥은 개신교 죄수들로 다 채워졌다. 이 때 파리에서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성경 출판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하면서 칼뱅의 후원자였던 에티엔느(Etienne de la Forge)도 화형을 당한다. 박해의 사실이 유럽 전역에 전해지자 독일 교회는 크

며, 그 폭도들은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 야욕을 갖고 이 일을 자행했다”고 거짓을 말한다. 이 사건은 칼뱅이 조국 프랑스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칼뱅은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를 거쳐 스위스 바젤(Basel)로 급히 피난하게 된다. 바젤에 머물면서 1535년(서문이 8월 23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쯤에 탈고된 것으로 추측)에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완성하여, 1536년 3월에 출판하게 된다. 또한 1535년 6월 4일에는 올리베핑에 의해 붙여 성서 번역본이 출판되어, 칼뱅이 라틴어로 된 추천 서문을 작성한다.

바젤에 있는 동안 칼뱅은 폴레주 몽테규 출신의 동기들을 만나게 된다. 1년 전 연설 사건으로 피신왔던 니콜

라 폼과, 제네바 사역의 동지 로 일하게 되는 뵘에르 비헤(Pierre Viret)와 재회한다. 또한 이 시기에 에라스무스가 1535년 6월부터 바젤에 머물기 시작했는데, 한 자료에 의

해 150권의 라틴어 성경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성경의 사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성경을 구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가자!”는 개혁교회의 외침은 성경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무지와 인습에 사로잡혀 있던 프랑스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성경 번역이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부흥의 수단이나 교권에 순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16세기, 성경을 위한 르네상스 시대 성경 번역사에서 16세기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패망할 때, 희랍 학자들은 도주하면서 여러 자료들의 사본을 가지고 플로렌스와 북부 이탈리아 도시로 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 대작들의 수사본(手寫本)이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또 각 대학들은 고문서의 본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번역 및 편집의 새로운 방법들이 인쇄 기술을 통하여 구축된다. 고문서 본문을 연구하던 인문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성경으로 돌

면 에라스무스는 스트라스부르와 바젤에서 칼뱅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다(Times of hostility to the reform in France. Chapter 1). 에라스무스는 1536년 7월 12일에 사망하여 바젤 뮌스터에 안장됐다. 바젤은 프랑스와 독일과 만나는 스위스 북부 도시로, 유럽 전지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었다. 바젤은 피신자들을 위한 관용의 도시 뿐 아니라 에라스무스, 올리베핑 등이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문화의 중심도시였다.

성경 번역이 종교 개혁에 미친 영향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고, 그의 신기술

에 의해 150권의 라틴어 성경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성경의 사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성경을 구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당시는 4세기 제롬(Jerome)에 의한 라틴어 불가타(Vulgata) 번역만을 공인된 성경으로 사용하였기에, 성직자들과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예부흥의 바람이 불고, 인쇄술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원어 성경 인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그러므로 르네상스는 성경 번역을 위하여 준비된 시대라 할 수 있다. 종교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고문서의 텍스트를 연구하는 인문주의자들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톨릭 유명한 신학자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던 그 시대에 번역된 성경을 통해 개개인이 성경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각이 시작되었다. “성경으로 돌

아가지!”는 개혁교회의 외침은 성경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무지와 인습에 사로잡혀 있던 프랑스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성경 번역이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부흥의 수단이나 교권에 순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16세기, 성경을 위한 르네상스 시대 성경 번역사에서 16세기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패망할 때, 희랍 학자들은 도주하면서 여러 자료들의 사본을 가지고 플로렌스와 북부 이탈리아 도시로 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 대작들의 수사본(手寫本)이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또 각 대학들은 고문서의 본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번역 및 편집의 새로운 방법들이 인쇄 기술을 통하여 구축된다. 고문서 본문을 연구하던 인문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성경으로 돌

아가지!”는 개혁교회의 외침은 성경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무지와 인습에 사로잡혀 있던 프랑스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성경 번역이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부흥의 수단이나 교권에 순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16세기, 성경을 위한 르네상스 시대 성경 번역사에서 16세기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패망할 때, 희랍 학자들은 도주하면서 여러 자료들의 사본을 가지고 플로렌스와 북부 이탈리아 도시로 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 대작들의 수사본(手寫本)이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또 각 대학들은 고문서의 본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번역 및 편집의 새로운 방법들이 인쇄 기술을 통하여 구축된다. 고문서 본문을 연구하던 인문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성경으로 돌

아가지!”는 개혁교회의 외침은 성경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무지와 인습에 사로잡혀 있던 프랑스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성경 번역이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부흥의 수단이나 교권에 순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16세기, 성경을 위한 르네상스 시대 성경 번역사에서 16세기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패망할 때, 희랍 학자들은 도주하면서 여러 자료들의 사본을 가지고 플로렌스와 북부 이탈리아 도시로 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 대작들의 수사본(手寫本)이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또 각 대학들은 고문서의 본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번역 및 편집의 새로운 방법들이 인쇄 기술을 통하여 구축된다. 고문서 본문을 연구하던 인문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성경으로 돌



바젤 성당에 안치된 에라스무스의 무덤.

하게 되면서, 가톨릭 교회의 유명 신학자들에 의해서 독점돼 있던 성경 본문을 연구하게 된다.

성경 번역을 처음 시도한 발도(Pierre Valdo)

보름스(worms)의 개혁자 동상과 제네바 바스티옹 공원의 개혁자 석상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으니, 바로 뵘에르 발도이다. 그는 어떤 인물이기에 두 곳의 개혁에 관련되어 있을까?

12세기 초 성직자들과 상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귀족과 기사들도 읽고 쓰기를 할 수 없는 문맹들이었다. 단지 상인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식이 필요했다. 발도는 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인으로 경건한 삶과 선행을 행하였고, 착한 행실로 모든 이로부터 존경을 받던 인물이다. 그는 교부들의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기독교와 멀리 떨어져 버렸는지 확인하게 되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큰 열망을 갖게 된다. 그의 신앙이 확연히 바뀌게 된 것은, 어느 날 저녁 같은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건을 목격한 뒤부터이다. 이 사건은 그에게 “지금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주었다. 그는 그의 구원에 대한 염려를 자신의 고해 신부와 상담했고, 그 후 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 재산에서 아내와 딸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나눠줬다.

미드웨이 렌트카

MIDWAY CAR RENTAL

최저의 가격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서비스

목사님, 선교사님
특별한 할인 혜택
적용해드립니다.

경제적 마일리지 최고의 자동차 / LA공항과 한인타운의 편리한 위치 한인타운내 무료픽업
각종차량 원비(고급승용차, 스포츠카, 컨버터블 및 기타)
7~15인승 밴 보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렌트카 필요하신분

213.487.4700

한국인 담당
조수아 김

Toll Free: 800.499.5779 / Cell: 213.327.6194
위치: 2926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월셔와 후버)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프라이밍 생등심	프라이밍 꽃살	오리고기
프라이밍 갈비살	초이스 찜갈비	족발소
사브 사브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돈까스/비프까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웨밀리 종합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들으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숙련된 경험들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려드립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Hankang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JAMES JHUNG (제임스 정)
EXECUTIVE DIRECTOR

Tel :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웨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SK smart-naephone

☑ SK한국전화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 213-435-0608

반값으로 할수있다!

- 차바디수리 50% 절약 -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결혼꽃 전문 꽃어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자재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www.HyundaiMoving.com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 - 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l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 업체

(714)200-7552 (213)663-2306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윈도우 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물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나라 이주 공사

정직, 성실,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및 분실
- 재입국 비자
- 소액재판 신청, 번역/통역
- 메디칼 신청, SSI/GR 신청
- 자녀 양육비 신청
- 속성 결혼/이혼 수속
- 각종 서류 작성 대행

(213) 388-9282 (213) 909-1103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망브랜드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현대, 휘너, 삼성출판

AMAZING 에어컨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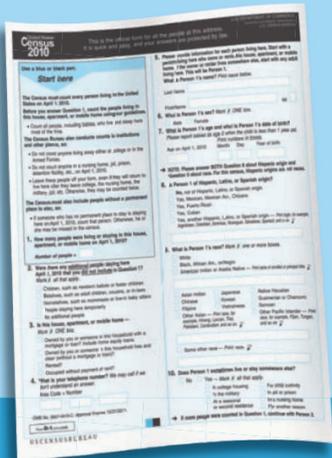
7년 연속에어컨 1위

HYUNDAI 7년 연속에어컨 1위
WINIA 2009년 12월 100대 이상 판매
SAMSUNG

에어컨 신제품과 수백여 가지에 맞춥니다. LG# 863910

323.525.0011 / 213.200.5388/amazingaircon.com

우리의 10분, 교육환경과 취업기회 그리고 커뮤니티를 발전시킵니다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은 10분이면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으로 커뮤니티의 중대한 서비스와 개발을 위해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인구조사 양식을 기입해주세요.

- 인구조사는 법적으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은 물론,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 귀하의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지 않으신 분께는 정보수집을 위해 인구조사원이 자택으로 방문합니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1-866-955-2010으로 전화하시거나 2010census.gov로 방문해주세요.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세요.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TEL : 323-643-0301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3월 29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일셔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공동 학위 수여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1-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2009년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 20-20 클럽 가입!
"iTalkBB가 코리안 메이저 리그 추신수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추신수 플랜으로 얻어진 수익금 중 일부는 연말에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추신수가 선택한 iTalkBB [추신수 플랜]으로 로컬·장거리·국제전화비 시원하게 날려 버리세요!

[30일 환불보장]

- 집전화 및 휴대전화로 한국포함 29개국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화!
- 미국전화번호 및 한국전화번호 무료제공!
- 기존 집 전화번호, 전화기 이용가능!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제공!
- 폰어댑터 무료 대여!

- 지금 가입하시면,
-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개통비 (\$29.99) 면제 + setup비(\$9.99) 면제**
- 행사기간: 3월 16일 - 3월 31일



추신수 플랜
\$9.99
첫 3개월간
이후 1년간 \$24.99/월

친구추천 Event
한 명 추천할 때마다 현재 이용중인 플랜 1개월 무료! 추천 받은 분께도 500 포인트 지급!(\$5 상당)



아이토크 버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추신수 아이토크버비 홍보대사

아·이·토·크·비·비
iTalkBB Jo!ns AMERICA
www.koreadaily.com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이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버비 아이토크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인편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미주 **현대자동차** 딜러중 최대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STORE

푸엔테힐스 현대의 **차별화** 선언!



자체 용자 시스템 운영

혜택) 소셜 번호가 없으시거나, 있으셔도 크레딧이 없으신 분들 적은 돈으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자체 용자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 리스 및 원가세일 단행

혜택) 목회자이시면서 소셜이 없으신 분, 크레딧이 없으신 분과 나쁜신 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또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특별가격에 도와드립니다. (단, 목회자 증명서 필요)



북미 최대 단일현대 딜러

혜택) 총 부지 6,8에이커로 800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전시 판매할 수 있으며, 편안하고 품위있는 차량구입에서 정비, 바디샵과 사후 관리까지 최첨단의 시설로 원스탑 딜러로 고객만족을 위해 만전을 기함



고객을 우선시하는 딜러

혜택) 우리는 고객을 우선시하기에 아이들 놀이방 및 간식 제공, 서비스 대기시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차량 구입차 전원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세차 및 일정의 서비스 고객들께 평생 무료 오일체인지 등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한인 특별 용자 프로그램

혜택) 소셜 필요 없음, 크레딧 필요 없음, 나쁜 크레딧 OK, NO DOWN (단 방문 비자 제외)

상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월 한달 스페셜 세일!



2010 NEW SONATA GLS

SALE \$750 CASH BACK과 **0%** 특별이자

LEASE \$179 +Tax 36Mo/12K mile Drive off 1,499

(O.A.C)Model #26404 in stock only



2010 NEW ELANTRA GLS

SALE \$1500 CASH BACK과 **3.9%** 특별이자

LEASE \$159 +Tax 24Mo/12K mile Drive off 1,999

(O.A.C)Model #44414 in stock only

** 푸엔테힐스 바디샵 딜러 자체내 오픈 **

검증된 기술자 채용, 최첨단 도장 처리시설 완비, 무료견인 및 무료 견적, 신속하고 깔끔한 뒷처리,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 100% 소화

오픈 기념 행사

수리하시는 동안 무료 렌트해 드림, 무료 휠 얼라이먼트 해 드림, 3월 한달 방문하시거나 서비스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삼리 정
Fleet Manager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9:00pm
▶ 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 월-토 7:30am~6:00pm
▶ 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스티브 박 연디 김 스티브 박 저니 안

푸엔테힐스 현대

WWW.PHHYUNDAI.COM T.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t'll be the next year you have your freedom. We'll let you return it.